Chat Archive

Return to Details Page (/campaigns/details/20869956/화장열차 | 루제)

Display as Pages

Show Whispers Hide GM Rolls

달늑대 (GM): 주사위

굴려봐

지금가도 ㄱㅊ??

제인오스카 : rolling 1d5

(2)

= **2**

달늑대 (GM): 그거랑

캐 시트 열어서

자~

관찰력

판정해봐

제인오스카 : ㅇㅇ 가도ㄱㅊ

관찰력	
기준치:	**85** / **42** / **17**
굴림:	**33**
판정결과:	어려운 성공

달늑대 (GM): 어려운성공을

제인오스카 : 이거야?

달늑대 (GM): 하셧네오

ㅇㅇ

그러면

제인오스카 : 초록주사위

달늑대 (GM): 근력판정도

해보세오

제인오스카 :

근력	
기준치:	**45** / **22** / **9**
굴림:	**55**
판정결과:	실패

ㅋㅋ

달늑대 (GM): ㅇㅋ

자

핸드아웃
탭을
눌러서
내가 보이는것을

달늑대 (GM): 확인하세요

제인오스카 : 확인햇서요

달늑대 (GM): ㅇㅋ가시조

CoC 7판 시나리오

화장열차 (花葬列車)

2026. 1. 17

KPC 루미르 & PC 제인오스카

-

KP: 당신은 미세한 진동에 흔들리며 눈을 뜹니다.
눈을 뜨면 그곳은 **열차 안의 객실**이며,
정면에는 당신의 소중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어째서인지 새까만 상복을 입은 모습입니다.
목소리를 내려고 해도, 잠에서 막 깬 탓인지 당신은 아무런 행동도 할 수가 없네요.
루미르는 그런 당신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당신을 안심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KP: "아직 잠이 덜 깨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을거야."
"**장례 행렬** 준비를 해둬야 해. 그러니까 나중에 천천히 찾아와."
루미르는 그 말만을 남기고, 객실을 나섭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사이...
당신은 거스를 수 없는 졸음 속으로 다시 가라앉습니다.
...

-

6호차

KP: 당신이 눈을 뜨면,
다시 열차의 객실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복장은 상복이며, 아무런 소지품도 가지고 있지 않네요.
창밖은 쾌청하고, 평온한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루미르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그가 앉아 있던 자리에는 **편지지** 한 장과 **봄망초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습니다.

제인오스카 : ... 장례 행렬 준비라, 루는 어디로 간 걸까. (그리 작게 중얼거리며 놓인 편지지부터 들어 자세히 살펴본다.)

KP: 좋아요. 일단 무리 없이 볼 수 있는 부분부터 확인해봅시다.
별도의 판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아침. 너무 많이 자서 머리가 무겁지는 않아? 같이 가려고 했는데, 무작정 깨우는 건 미안하니 먼저 갈게. 꽃은 항상 열쇠가 되니까 천천히 와. 오늘은 중요한 장례 행렬의 날이니까.

KP: 내용은 이러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면 **관찰력**판정을 해봐도 좋겠네요.

제인오스카 : 그래도 같이 가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남겨준 편지를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

관찰력	
기준치:	85 / 42 / 17
굴림:	1
판정결과:	대성공

KP: ??

아니...

제인, 당신은 편지지를 관찰하며 뒷면에도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아챕니다.

이후에 '뒷면' 에 대한 내용물 관찰력 판정 필요 없음!!

뒷면에 내용은 이러합니다.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그저 그것뿐….

KP: 제인, 당신은 아무런 위화감 없이 기억해냅니다.

오늘은 장례 행렬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너무 늦어서는 안 되지만, 아직 시간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누구의 장례 행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그런 것은 떠오르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크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객실을 나서거나,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인오스카 : 무어가 날 불안하게 만든다는 걸까. 아무 말 없이 날 두고 가서 그런 건지... (있다가 만난다면 이유나 물어보리라 생각하며 함께 놓여있던 꽃을 조심스럽게 들어서 챙긴 뒤 객실을 둘러본다.)

KP: 객실엔 사람의 기척이 전혀 없습니다.

왠지 객실 바깥에도 기척이라곤 없는 것 같네요.

봄망초 꽃 한 송이만이 눈에 밟힐지도 모르죠.

객실 바깥에 바로 있는 **안내판**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제인오스카 : (열차 안임에도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에 의아함을 느껴도 우선 걸음을 옮겨 안내판부터 확인한다.)

KP: 안내판에 따르면,

당신이 있는 곳은『6호차 : 봄망초』인 듯합니다.

6호차는 맨 마지막 차량인 듯하며, 차장실에는 커튼이 쳐져 있어 안을 볼 수 없습니다.

안내판은 금속제 플레이트이며, 아래쪽에 문자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안내판 아래에는 받침대 위에 놓인 화병이 있으나, 아무 꽃도 꽂혀 있지 않습니다.

제인오스카 : 설마 열쇠라 함은 이런 걸 뜻하는 것이려나... (빈 화병과 안내판을 번갈아보더니 루가 남겨주고 간 봄망초 한 송이를 화병에 꽂는다.)

KP: 화병에 봄망초를 꽂으면, 앞쪽 호차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6호차에서 5호차 쪽으로 가는 문이겠네요.

제인오스카 : 많은 게 두루뭉술해서 무언가를 명확히 이르진 않더라도 언제나 너는 내게 잘해주려 하기에 내용을 알아채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 (문득 먼저 간 루미르를 생각하며 조심스레 열린 문으로 들어가 5호차 내부도 둘러본다.)

KP: 좋습니다. 당신은 6호차를 거닐다가, 5호차로 이동하기로 합니다. 마침 문이 열렸으니까요.

지나치며 6호차의 금속 플레이트 아래쪽, 각인되어 있는 문자가 눈에 밟힙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봄망초는 추상(追想)의 꽃. 꽃말은 티 내지 않는 사랑.』

KP: ...

-

5호차

KP: 당신이 5호차에 들어서면, 그곳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응?

그러나 어떤 얼굴을 들여다보아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얼굴이라기보다는,

마네킹에 고급 컬러 프린트를 붙여 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짜여진 듯한 이질감...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성 판정? (1/1d3)

제인오스카 :

SAN Roll	
기준치:	65 / 32 / 13
굴림:	73
판정결과:	실패

KP: 꽤 놀랐던 걸까요? 아니면 아까 너무 주변 살피는 데 신경을 곤두세워서..

예민해졌을수도 ?

제인오스카 : rolling 1d3

(2)

= **2**

KP: 이성이 2 차감됩니다.

그리고, 이 곳에서도 안내판을 발견합니다.

안내판에 따르면, 이곳은『5호차 : 기간티움』입니다.

안내판은 금속제 플레이트이며, 아래쪽에 문자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안내판 아래에는 꽃이 꽂혀 있지 않은 화병이 놓여 있습니다.

제인오스카 : (묘한 이 존재들이 시야에 꽤 거슬린다는 생각을 했으나, 제인은 구태여 입 밖으로 뱉어내지는 않는다. 대신 안내판의 문자를 먼저 확인한다. 아무래도 이전 호차처럼 꽃을 찾아야 하는 모양이니...)

KP: 안내판의 문자를 확인합니다. 확실히 이 북적대는 사람들이 거슬리네요.

조금 사람들을 밀치고 가야할지도...

내용은 이러합니다.

『기간티움은 불굴(不屈)의 꽃. 꽃말은 원만한 인품.』

KP: 사람들을 헤치고 가던 차에, 당신의 귀에 문득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루미르: 이쪽. (객실 쪽에서 슬쩍 손짓합니다.)

(약간... 거긴 사람들에게 치여서 불편하지 않아? 하는 눈입니다.)

제인오스카 : ...루? 먼저 간다더니, 여기 있던 거야? (생각보다 더 앞 칸에 있지 않은 탓에 놀라 눈이 커지는 것도 한순간일뿐. 다른 생각은 잠시 미루고 눈치껏 루미르가 있는 쪽으로 가까이 다가간다.)

루미르: (네가 가까이 오면, 사람이 없는 객실 안으로 데려가서...) 응. 이쪽에 있었어.

(좌석에 앉고, 맞은편 좌석을 가리킵니다.)

머리는 좀 어때?

제인오스카 :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루미르가 가리킨 좌석에 순순히 앉았다.) 머리... (곰곰히 생각해보더니 금새 입을 연다.) 생각보다 개운해. 너무 개운해서 이상할 정도로... 루는 무얼 하고 있던 거야?

루미르: 응. (다행이네.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 얼굴입니다.)

장례 행렬이 아직이지만 슬슬 준비해야 하니까.

KP: 그 때, 당신은 비로소 위화감을 떠올립니다.

자신은 열차에 탄 기억이 없으며, 타기 전의 기억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장례 행렬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수많은 위화감과,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어떠한 공포가 밀려옵니다. **이성 판정**? (1/1d4)

제인오스카 :

SAN Roll	
기준치:	63 / 31 / 12
굴림:	19
판정결과:	어려운 성공

KP: 성공~

루미르: 혹시 뭔가 생각났어?

제인오스카 : ...있잖아. 루, 우리... 이 열차 누구를 위해 탄 건지, 왜 탄 건지 혹시 기억 나? (평소와 그다지 다르지 않은 표정으로 루를 바라보며 느리게 눈을 끔뻑거린다.)

루미르: (그 말에 평소와 다르지 않은, 묵묵한 표정이 당신을 응시합니다.) 맨 앞 차량에서 장례 행렬을 하잖아. 이 열차가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겠지.

제인오스카 : ...역시 그런 거겠지. (루미르의 답변이 제 질문과 묘하게 어긋나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제인은 부러 더 묻지 않는다. 그냥 그의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여주곤, 차라리 다른 질문을 하기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장례 행렬을 참여하려면 여기보다 더 앞 차량으로 가야 하는 거야? 아니면 이곳에서 기다려야 하는 거야? (생각이 조금 많아진 탓에 그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루미르: (당신이 무슨 의심을 품든 간에, 아는 대로 대답합니다.) 앞 차량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저 쪽.

(그러다 당신을 물끄러미.) 제인, 지금은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않아도 돼.

열차에 왜 탔는지를 묻는다면, 이전 일은 나도 기억이 전혀 없어. (그러는 것 치곤 묘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인 듯한 태도지만요.)

제인오스카 : 생각이 많은 걸 들켰네. 루는 나를 너무 잘 알아. (저도 모르게 작게 웃더니 턱을 괴며 제 앞에 앉아있는 루미르를 빤히 바라본다.)

(모든 걸 받아들인 듯한 루미르가 조금 이상하다곤 생각하나, 그녀는 그가 해준 말을 모두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제인은 루미르를 믿으니까. 그래서 제인은 루미르를 빤히 바라보며 입을 다시금 연다.) 그러면 하나만 더 말해줘. ...아까는 두고 갔지만, 지금부터는 나와 같이 가는 거지?

루미르: (아마도 보통의 상황이라면, 주저없이 저도 당신을 믿을 것입니다. 그래 왔으니까요.) 내가 따로 준비할 게 있어서 항상 같이 가지는 못할거야. 그래도 계속 보러 올게. (혹 그것도 안심되지 않느냐는 누그러진 눈이 당신을 향합니다.)

KP: 문득 당신은 궁금할 수도 있겠죠.

오늘이 며칠인지, 혹은 왜 상복을 입고 있는지... 나아가 이 장례 행렬은 누구의 것인지.

제인오스카 : (또 두고 간다며 그에게 투정을 부리려다가, 저답지 않은 것 같아 입만 어물거리다가 결국 입을 다문다. 대신 다른 말을 전할 뿐.) 알았어, 기다릴게. (아쉬운 마음을 뒤로 꼼꼼하게 숨겨 보이지 않게 한다.)

(여전히 이후 참여하게 될 이 장례 행렬의 주인과 이유가 무엇일지 제인의 머릿속에서 개운하게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맴돌기만 한다.)

KP: 그러면, 제인은 더이상 질문하지 않을까?

제인오스카 : (아쉬운 마음은 뒤로 했으나, 호기심은 해결하지 못해 미루지 못한 채 결국 다시금 루미르를 향해 입을 연다.) 정말로 우리가 왜 이걸 입고, 참석해야 하는 행렬의 주인이 누구인진 말해주지 않을 거야? ...말해줄 수 없는 거야?

KP: 그 질문이 나온 순간,

객실의 창문에 충격이 가해지며 바깥 풍경이 새까맣게 변합니다.

열차가 터널에 들어감과 동시에, 실내 조명도 점점 어두워집니다.

아뇨, 하지만 당신에게는 그런 변화조차 사소하게 느껴질 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눈앞 루미르의 몸에서 *서서히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흘러넘치는 피가 상복과 하얀 셔츠, 좌석을 붉게 물들입니다.

KP: 온몸에서 피가 솟아나오는 듯한 모습입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실내에서도, 그 광경은 너무나 선명하고, 눈에 박힙니다....

지혈을 하려 해도, 출혈 부위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문득, 그가 무감한 얼굴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 무감정하게 말합니다.

루미르: 잊어버린거야? 네가 잊어버렸다면....

KP: 그 말을 끝으로, 조명은 완전히 꺼집니다.

아무리 손을 뻗어도, 그 무엇도 만질 수 없습니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면, 무언가가 보입니다. 창문 가득 빼곡히 펼쳐진, 크고 작은 수많은 눈입니다.

모두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관찰 당하고 있습니다.

조소, 호기심, 흥미, 의심, 분노, 불안, 공포.....

KP: 수많은 감정이 당신을 응시합니다.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그저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광경, 수많은 시선.... 그것은 당신의 정신을 너무나 쉽게 휘젓고, 일그러뜨립니다.

이성 판정 (1d6+1 / 1d10+2)

제인오스카 :

SAN Roll	
기준치:	62 / 31 / 12
굴림:	68
판정결과:	실패

rolling 1d10

(2)

= **2**

KP: 2+2 총 4의 이성을 차감합니다.

...

문득, 열차 안이 밝아집니다.

터널을 빠져나온 듯하며, 창밖에는 여전히 평온한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다만, 조금 구름이 늘어난 듯한 느낌이 들 뿐입니다.

좌석을 보면, 루미르는 이미 사라져 있습니다.

KP: 좌석에는 피 한 방울도 남아 있지 않고, 편지지 한 장만 놓여 있습니다.

제인오스카 : .....(루미르가 사라진 자리를 빤히 들여다본다. 수많은 시선들이 휘젓고 간 자리가 분명 무척 괴로웠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피를 흘리던 루미르의 모습이 더 선연하게 남아 제인을 괴롭힌다. 분명 아프지 않은 얼굴이었다. 근데 넌 원래도 죽도록 아플 때조차 얼굴을 일그러뜨리지 않았기에 그것이 정말로 무감한 얼굴이었을진 잘 모르겠다.)

...계속 보러온다고 했으니, 다음에도 오는 걸까. 너는 굳이 캐물은 날 원망할까. (제인은 그리 중얼거리며 남겨진 편지지를 들어 내용을 살핀다.)

KP: 내용은 이렇습니다.

음식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 먼저 갈게. 다음은 식당차니까, 뭐라도 먹고 싶으면 와. 서두르지 않아도 돼. 천천히 와도 괜찮아. 기다릴게.

KP: 그리고, 뒷면에도 글이 적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곁에 있을 수 있었다면 쓸쓸하지 않을 수 있었을텐데. 왜일까?

KP: 이후는 혈흔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제인오스카 : 장례식에 사람을 부르려면 대접할 게 필요하지... (어쩌면 조금 내려놓은 듯한 목소리로 편지를 괜히 쓸어본다. 네가 그렇게 사라졌는데 내가 느긋하긴 어려울 것이다. 제인은 그리 확신했다.)

(더불어 혈흔으로 가득해 읽기 어려워진 뒷면을 바라보며 피식 웃고야 만다.) 하지만 묻고 싶은 게 있어도 참았을 때, 네가 날 기어코 물어보게 만들었잖아. 그랬으면서...

(제인은 괜히 머뭇거리게 되는 생각과 그의 모습을 애써 뒤로 하며 다음 호차로 건너가기 위해 마저 둘러본다. 이번에도 꽃이 열쇠일까. 아니면 열차의 이름이 이름이니만큼 살아있지 않을 꽃일까.)

KP: 당신의 생각은 말로써 상대에게 닿지 않습니다. 당장은 루미르가 가버렸으니까요.

객실 밖으로 나가면, 아까까지 가득하던 마네킹들이 모두 사라져 있습니다.

그 대신 통로에는 기간티움 꽃이 떨어져 있습니다.

제인오스카 : (기묘하던 것들이 사라진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점점 이상해지는 기분을 억누른다. 바닥에 떨어진 꽃을 주워 들어 이전과 똑같이 화병에 꽂는다.)

KP: 그렇게 합니다.

앞쪽 문이 열리고, 4호차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제인오스카 : (복잡한 생각과 별개로 호차를 넘어가는 걸음 자체엔 망설임이 담지 않았다. 그저 걸을 뿐.)

-

4호차

KP: 당신이 4호차에 들어서면, 그곳에는 사람의 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창밖은 점점 흐려지고 있으며, 곧 비가 내릴 것처럼 보입니다.

편지에 적혀 있던 대로 이곳은 식당칸인 듯, 흰 식탁보가 깔린 테이블들이 여러 개 놓여 있습니다.

모든 좌석은 비어 있지만, 단 하나의 자리만 접시와 커틀러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네임플레이트가 놓여 있으며, 그 위에는

『제인 오스카 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KP: 또한, 안내판을 발견합니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인오스카 : 날씨가 점점 흐려지네... (이리 되든 저리 되든 앞 호차에 다다를 때쯤엔 폭우가 올까. 그리 생각하며 안내판부터 자세히 들여다본다.)

KP: 안내판에 따르면 이 곳은『4호차 : 콜키온』입니다.

금속제 플레이트 아래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으며,

그 밑에는 꽃병이 하나 놓여 있지만 아무 꽃도 꽂혀 있지 않습니다.

콜키온은 영원(永遠)의 꽃. 꽃말은 즐거운 추억.

제인오스카 : 즐거운 추억이라... (제인은 자연스레 루미르와 함께 한 시간들을 떠올리며 괜히 안내판을 한 번 매만지다가 이내 손을 뗐다. 그리곤 꽃이 어디에 있을지 열차 안을 조금 더 자세히 둘러본다.)

KP: 열차 안을 둘러봤지만, 꽃이 당장 눈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식탁보가 깔린 테이블, 그리고 보란 듯이 당신의 이름이 적혀있는 자리...

...앉으라는 걸까?

제인오스카 :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열쇠는 주지 않는다는 건가. (제인은 어쩔 수 없다는 얼굴로 작게 혀를 차더니 제 이름이 적힌 테이블 의자에 앉는다.)

KP: 자리에 앉아 고개를 들면,

어느샌가 맞은 편에 루미르가 앉아 있습니다.

그의 몸에는 상처 하나, 피 한 방울조차 묻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태연한 얼굴에 가까운데...

제인은 이 상황이 놀라거나 무서울까?

루미르: (언제나처럼 제 자신을 살피기보단 당신 쪽에 시선이 가 있습니다.)

...왜?

제인오스카 : ...정말로 보러 왔네, 싶어서. (갑자기 생겨난 이에 그린 듯 완벽한 태연함을 자아내긴 어려웠으나, 보통의 사람에 비해선 그다지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 평소의 그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KP: 그렇다면 이성 판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아까의 일에 대해서, 루에게 심리학 판정이 가능합니다.

원치 않는다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루미르: (순순...) 그럼. 지금은 너랑 있는게 더 좋아.

제인오스카 : 난 원래도 너랑 있는 게 좋았는데도? (이리 말은 했지만 제인은 아까의 루미르의 모습이 겹쳐 보여 그가 왜 이리 태연한지 의문스러워 머리가 다시 복잡해졌다. 대체 왤까. 그런 마음으로 제인은 그를 빤히 바라본다.)

KP: 한번 **심리학** 판정?

멋지게 RP를 했으니 보너스 다이스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인오스카 :

심리학	
기준치:	**80** / **40** / **16**
굴림:	**38**, **31**, **21**
+2:	어려운 성공
+1:	어려운 성공
0:	어려운 성공
-1:	어려운 성공
-2:	어려운 성공

KP: 루미르에 대해서는 잘 아는 편입니다. 제인은 루를 빤히 바라봅니다.

루미르는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방금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숨기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상태** 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됩니다.

마치 자신의 의지가 아닌 것처럼도 느껴지고, 자세한 건 역시 알 수 없네요.

루미르: .... (그런 말엔 여전히 어떻게 재깍 대답해야 할지 몰라 좀 머뭇거리는 기색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KP: 당신이 자리에 앉아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있노라면,

3호차 쪽 문에서 수레를 미는 마네킹 하나가 나타납니다.

요리사 복장을 하고 있으며, 팔에는 상장(喪章)이 감겨 있습니다.

마네킹은 은색 덮개(클로슈)가 씌워진 요리를 하나만 탐사자의 앞에 내려놓고,

서툴지만 공손하게 인사한 뒤 돌아갑니다.

루미르: 뭔가 좀 먹는 편이 좋지 않겠어?

제인오스카 : (말할 수 없는 상태인 걸 대략적으로 알아챈 이상, 제인은 루미르에게 더 이상 물어볼 생각의 여지조차 남기지 않았다. 루는 늘 할 수 있는 한 다 말해주었으니, 그쪽이 확실하겠지. 제인은 그리 생각하며 생각을 뒤로 밀어두곤 덮개를 검지로 톡톡 친다.) 뭐... 그것도 그렇긴 해. 과연 여긴 뭐가 들어있을까나.

루미르: (톡톡 건드리는 검지 쪽에 시선이 한번 머물다가, 돌아가는 마네킹 쪽에 시선이 한 번.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요기 정도만 할 수 있는 음식이려나.

내용물이 많지는 않아보여서. (안 그래? 하는 순순한 표정.)

KP: 다른 건 다 제쳐두고, 딱 한 접시만 놓고 가는 건 조금 수상하긴 하네요. 클로슈를 열어볼까?

제인오스카 : 왜 네 건 없는지 모르겠다만... 먹을지 말지는 확인이나 해보고 정하지 뭐. (잠시의 고민이라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그녀는 루의 시선이 제게로 돌아오자 거의 바로 클로슈를 들어올렸다.)

KP: 그 안에는....

평범한 리소토(죽입니다.)가 들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소박하고, 나쁘게 말하면 초라한 음식입니다.

먹어볼까?

루미르: 나는 어차피 그렇게 배고프지 않으니까 상관없어. (정말로 개의치 않아합니다.)

KP: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루미르한테 먹어보라고 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인오스카 : (여러 기묘한 상황은 둘째치더라도 티는 내지 않지만 계속 나타났다 사라지는 루미르를 계속 신경 쓰는 탓에 영 의욕이 생기지 않는 듯 숟가락을 들어 그릇을 조금 휘적거리더니 다시 숟가락을 내려둔다.) 그냥 입맛이 좀 없네.

루미르: ...그래? 그래도 이 앞까지 가려면 요기 정도는 필요할텐데. (기웃.)

아마.... (이 뒷말엔 조금 머뭇거리다가, 이야기를 바꾼 것 같은 기색입니다.) 그래도 맛있을 거야. 분명히.

제인오스카 : 루는... 지금 내가 조금이라도 챙겨 먹었으면 좋겠어? (눈을 느리게 끔뻑이며 루와 마주한 시선을 피하지 않는다. 뻔히 들여다보면 루미르의 무어라도 보이는 것처럼.)

루미르: (당신이 그렇게 하면,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저항 없이. 하지만 그 보는 눈동자 속에선 이전에 보았다시피,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은 짧고 명확합니다.) 응.

제인오스카 : (눈동자 너머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 앎에도 당신 입에서 나온 말이 그것이기에 제인은 내려둔 숟가락을 다시 든다. 그리곤 그릇에 든 걸 떠서 입에 가져다 댄다. 당신이 원하는데 그것을 거절할 도리 같은 건 제게 없었다.) ... 알았어.

KP: 묘한 기시감과 함께 불쾌함이 느껴지지만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리소토를 먹는 순간, 참을 수 없는 졸음이 몰려옵니다.

...

쓰러지기 직전, 누군가가 몸을 받쳐 준 듯한 감각이 들고...

그대로 잠에 빠집니다.

-

꿈

KP: 당신은 꿈을 꿉니다.

하얀 벽의 방에서 정체 모를 존재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입은 막혀 있고, 팔과 다리는 침대에 묶여 있습니다.

별안간 은빛 바늘이 팔에 꽂히고, 액체가 몸 안으로 주입되기 시작합니다.

공포와 구역질, 견딜 수 없는 불쾌감과 통증....

살갗을 피가 흐를 때까지 마구 긁어댑니다. 그리고 그 피가 묘하게 안도감을 줍니다.

KP: 그러다 누군가의 품에서 울고 있는 자신과, 함께 울고 있는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

KP: 눈을 뜨면 다시 식당 칸입니다.

루미르는 사라지고, 편지와 콜키온 한 송이만이 남아 있습니다.

리소토는 검게 변해 있습니다.

제인오스카 : ..... 정말로 꿈일까. (괜히 팔을 쓸어 내리며 또다시 텅 비어버린 앞 좌석을 빤히 바라본다. 또 가버렸네. 네가 정말로 내게 말하고 싶은 건 뭘까. 제인은 그리 생각하며 리소토는 옆으로 슬쩍 밀더니 또 남겨져 있는 편지를 읽는다.)

몸이 많이 힘들어 보이네. 괜찮아? 너무 괴로우면 무리하지 않아도 돼. 천천히, 네가 편한 속도로 가도 괜찮아. 마음이 조금이라도 진정되면 이쪽으로 와. 나는 계속 기다리고 있을게.

KP: 편지의 뒷내용은 이렇습니다.

네가 보고 있는 세상은 지금 어떤 색일지 궁금해.

제인오스카 :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의 색... 너도 같이 보면 되잖아. (당연하다는 듯 하는 말이 어색하지 않았다. 괴로워 보이면 더 이상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도 않고.)

...루, 나쁘네. (다음 호차에서 기다릴 거라는 그에게 들리지도 않을 말을 툭 뱉어낸다. 네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걸 알면 결국 음식에 입을 댄 것처럼 내가 거부할 도리가 없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 제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남겨진 콜키온 한 송이를 꽃병에 꽂아 넣는다. 벌써 3번째 꽃인가.)

KP: 콜키온 한 송이는 마치 제 자리를 찾아간 것처럼 무리없이 꽃병 안에 꽂힙니다.

문이 열리고, 3호차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제인오스카 : ..... (루와 있을 적과는 달리 조금 가라앉은, 혹은 차가운 얼굴을 하며 3호차 안으로 걸음을 옮긴다.)

-

3호차

KP: 3호차에 들어서면, 그곳은 마치 도서관과 같은 모습입니다.

창밖은 완전히 흐려져 있으며, 언제 비가 내려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벽과 통로에는 여러 개의 책장이 놓여 있고, 소파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안내판에 따르면, 당신이 있는 곳은『3호차 : 스카비아』입니다.

안내판은 금속제 플레이트이며, 아래쪽에 문자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안내판 아래에는 받침대 위에 놓인 화병이 있으나, 아무 꽃도 꽂혀 있지 않습니다.

『 스카비아는 재기(再起)의 꽃. 꽃말은 【아침의 신부】』

KP: 루미르는 소파에 앉아, 어떤 책을 조용히 읽고 있습니다.

제인오스카 : ... 아침의 신부. (각 열차 칸의 이름에 붙은 꽃들이 의미하는 게 하나같이 어느 사람이 제가 사랑하는 이에게 건네는 말 같았다.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걸까. 그리 생각하며 고개를 돌리자, 루미르가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자연스레 그곳으로 걸음을 옮기다가 그의 앞에 우뚝, 멈춰섰다.)

루미르: (그러면, 발소리를 듣고 자연스레 책에서 시선이 당신 쪽으로 옮겨 머무릅니다.) 왔구나.

널 닮은 꽃이야. 스카비아는.

제인오스카 : 날 닮았다니, 어째서? (도통 모르겠단 눈으로 고개를 갸웃 기울인다. 뜬금없이 하는 말이 꽃이 저를 닮았다는 것이라니. 그녀는 자연스레 루미르의 곁에 앉아 이유를 묻는다.)

루미르: 잘 모르겠으면 말고. (머뭇거림이 스치는 듯 하지만, 이내 책을 덮어 제목을 보여줍니다. 책의 제목은 '앨저넌에게 꽃다발을'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KP: 제인이 옆에 앉아주었으니, 자연스럽게 책을 함께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제인오스카 : 흠... (머뭇거리는 기색이 보이자, 적당히 보라색 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한 제인은 그가 제목만 보여준 책의 내용을 같이 보기 위해 조금 더 곁에 붙어 책을 바라본다.)

KP: 좋습니다 자세히 보고 싶으면 **자료조사** 혹은 **관찰력** 판정~

제인오스카 :

자료조사	
기준치:	85 / 42 / 17
굴림:	2
판정결과:	극단적 성공

KP: 루가 ...

옆에서 차근차근 줄거리를 짚어 설명해줍니다. 귀에 잘 들어오네요.

루미르: (다 설명한 뒤, 한 템포 늦게 제 감상도 뱉습니다.) 선의만으로도 충분히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 거겠지.

제인오스카 : (루미르가 해주는 이야기를 경청하던 제인은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도움이... 도움이 아니게 된다면 정말 슬플 것 같은데 말이지. 악의라면 그것을 원망할 수라도 있지, 선의면 원망하지도 못할 것 같아.

루미르: 맞아.

아마 나도 그런 적이 있었을거야. 누군가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지조차 묻지 않고... (그렇게 말하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건 결국 못된 행동이었겠지.

(시선이 기울어져 바닥을 향합니다. 이후의 목소리는 바로 옆에 앉아있는 당신이 간신히 들을 정도로 작습니다.) 나는 그냥, 꽃다발을 받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

제인오스카 : 루도 그런 적이 있단 말이야? 의외네. (정말로 신기하다는 듯 고개를 약간 기울이니 긴 머리카락이 스르륵 옆으로 흘러내렸다. 꺼낼 말을 고르듯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이내 입을 연다.) 하지만 루가 그렇게 판단했다면 상대는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 어쩌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더라도 당신이라면 괜찮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일지도 모르지. 적어도 나는 그럴 것 같은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잖아.

(시선을 피한 루미르의 고개를 굳이 돌리진 않았지만, 그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며 말을 이어간다.) 꽃다발을 받고 싶은 마음이 무어가 나빠. 그 꽃다발이 정말로 꽃다발이던 아니면 아예 다른 뭐가 됐든 말이야, 줄게. 이게 아니려나? (루미르가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담긴 건지 마지막 말엔 장난끼가 조금 섞여 들어 이전 말보다 조금 가볍게 느껴졌다.)

루미르: 그랬을까? (그 물음의 대상은 당신이지만, 마치 저 멀리 묻는 것처럼. 혹은 혼잣말처럼도 들려옵니다. 제 어깨에 닿는 감각이 느껴지면 책을 덮고, 옆에 내려둡니다. 그리고 다른 책을 꺼내는 것 같네요.)

...그렇지. 너는 그랬었지. 그리고 보통 이런 식으로 날 위로해주려고 하고. (당신의 어깨에 손을 짚어 바로 세워줍니다. 마치 어떤 책임이 있는 듯한 행동처럼.) 하지만 지금은, 이 곳을 조금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KP: 마치 선을 두는 것 같은 태도입니다. 이 또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벽과 통로에 놓여있는 **책장**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인오스카 : (제인은 바로 세워주는 당신에게 무어라 묻고 싶었지만 이전의 일들이 있었기에 굳이 입을 열지 않았다. 대신 웃고 있던 그대로 작게 웃어주었다.) 네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걸 해결해주진 못해도... 이 정도의 위로는 괜찮잖아. 그래, 네 뜻에 따를게. 평소엔 네가 따라주었으니, 오늘은 내가 따라야지. (제인은 그리 말하며 순순히 벽과 통로에 놓인 책장으로 다가가 세세히 살펴보기 시작한다.)

KP: **자료조사** 판정?

제인오스카 :

자료조사	
기준치:	85 / 42 / 17
굴림:	36
판정결과:	어려운 성공

KP: 이런 책장을 조사하는 건, 당신에게 별로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두 권의 책을 발견합니다.

한 권은『마음의 병에 대하여』, 다른 한 권은『슈뢰딩거의 고양이 상자 실험』입니다.

정독하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살펴봐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장례 행렬까지 남은 시간은 괜찮을까?

제인오스카 : (금방 읽으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며 책을 꺼내든다.)

(관찰력 굴려서 성공하면 속독했다는 판정 가능?)

KP: 그럴까? 그럼 굴려보자~

제인오스카 :

관찰력	
기준치:	85 / 42 / 17
굴림:	98
판정결과:	실패

ㅁㅊ

KP: ㅋㅋ

제인오스카 : 인생 쉽지 않다

KP: 원래쉽지않은법이야인생은

제인오스카 : 하...

루미르: (쳐다봄...)

좀 천천히 읽어도 되지 않을까? 제인.

괜찮아. 그 정도로 해도 시간이 넉넉하니까.

제인오스카 : ... 행렬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겠어서 마음이 좀 급했나봐. 그러면... 그렇게 할까. (페이지를 빠르게 넘기려다 루의 말에 멈추고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루미르: (책을 가지고 다시 제 옆에 앉으면 어떻겠냐는 듯, 옆자리를 두드립니다.)

KP: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핸드아웃)

제인오스카 : (두 권 다 챙겨 들고 루미르 곁에 가서 얌전히 앉는다...)

KP: 책 두 권을 차례차례 넘겨 읽습니다.

책을 읽고 난 즉시, **아이디어** 판정?

아이디어는 지능 판정이야

제인오스카 :

지능	
기준치:	70 / 35 / 14
굴림:	86
판정결과:	실패

미쳤나

KP: ...

당신은 즉시, 어떠한 환각을 봅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귓가에 속삭입니다.

식사 중에도, 목욕 중에도, 잠든 사이에도.

「저 녀석은 네가 싫은 거야.」

「널 보며 우월감을 느끼고 있는 거야.」

「아니야, 사실은 널 귀찮아하는 거야.」

「너 같은 걸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따위 있을리 없잖아.」

「분명해, 틀림없어.」

「이러다간 죽임당할 거야.」

「저 녀석은 언젠가 널 죽일 거야.」

「죽기 싫지 ? 」

「그래, 먼저 죽여 버리면 되잖아」

「죽여 버리자」

「죽여」

「죽여」

「「「「죽여」」」」」

KP: 증오로 가득 찬 환청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어두운 나날.
정신은 마모되어, 무의식적으로 칼날을 찾게 됩니다.
그런 삶 속에서, 당신은 누군가를...
... 진심으로,
죽이고 싶었다. 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깨닫습니다. **이성 판정** 1d6 / 1d10+1

제인오스카 :

SAN Roll	
기준치:	58 / 29 / 11
굴림:	60
판정결과:	실패

rolling 1d10

(2)

= **2**

루미르: (천천히 일어납니다.) 시간이야. 난 먼저 가야 해. 넌 여기서 찾아야 할 걸 마저 찾아.

제인오스카 : ...있잖아. 다음에서도, 기다릴 거야? (구태여 붙잡진 않았지만, 목소리가 루미르의 발걸음을 잡고 싶다는 듯 흘러나왔다.)

루미르: (뒤돌은 채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대답하는 목소리만 들려올 뿐..) 그러길 원해?

제인오스카 : (이번엔 돌아봐 주지 않은 것에 이유가 있을 거란 이성과 달리 손을 뻗어 돌아보게 잡고 싶단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에 가득 찬다.) ...그냥 난 너를 늘 보고 싶으니까.

루미르: 그렇게 할게. 네가 원하는 대로.
다음 호차에서 보자. (그리고 먼저 2호차로 이동합니다.)

KP: 마치 제인, 당신만이 증명을 원한다는 듯 다음 호차로 갈 때 꽃을 필요로 하네요.
책장을 조금 더 **관찰**해서 꽃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인오스카 : 응. (루미르에게 닿았을지 모르겠는 목소리로 대답한 이후,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으로 다가가 제가 찾아야 할 것을 찾는다.)

관찰력	
기준치:	85 / 42 / 17
굴림:	28
판정결과:	어려운 성공

KP: 당신은, 책 중 한권이 가짜임을 알아차립니다.

책 모양의 소품 상자 안에는 스카비아 꽃다발이 들어 있습니다.

생화의 감촉이지만, 시들 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제인오스카 : 꽃다발... 그러니까 이게 스카비아, 네가 나를 닮았다고 했던... (분명 곁에 루미르가 듣고 있지 않음에도 제인은 꼭 그가 3호차에 남아있는 것처럼 작게 읊조린다. 생화의 감촉이 보드라워 조심스레 쓸어본다.)

...정말로 연보라색이네. 바보 같아. (괜히 그의 탓을 하며 꽃기 아깝다는 듯 안내판 아래로 걸어가 꽃다발을 꽂아 넣는다. 이상하게도 이 꽃들 전부가 꼭 루가 제게 건네준 것 같아 제인은 마음이 잔뜩 복잡해진 채로 가만히 서 있었다.)

KP: 마치 그가 당신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꽃병에 건네주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시금 루미르를 만나기 위해 꽃병에 꽃을 꽂아 넣습니다.

2호차로 향할 수 있습니다.

제인오스카 : 보고 싶어. (분명 먼저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왜 이리도 보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다. 제인은 그리 생각하며 조금 느린 걸음으로 2호차에 발을 디딘다.)

-

KP: *This message has been hidden.*

ㅠㅠ

2호차

KP: 당신이 2호차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곳은 이전 차량들과는 전혀 다른 공간입니다.

넓어야 할 열차 내부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병원의 개인실 하나입니다.

마치 열차 전체가, 이 방 하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려옵니다.

KP: 언제부터 내리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밖은 이미 어둡고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방 한쪽에는 작은 선반과 옷장이 놓여 있고,

침대 옆에는 소파가 가지런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배치입니다.

루미르는 소파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침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KP: 마치 그 곳에 누워 있는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요.

벽에 걸린 안내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인오스카 : .....(그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 하지 못한 것에 가까울까. 그곳에 누워있는 누군가를 들여다보기를 피하며 안내판부터 바라본다.)

KP: 안내판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2호차 : 금잔화

KP: 여느 안내판처럼 차갑게 빛나는 금속 플레이트, 그리고 새겨진 문장이 있습니다.

안내판 아래에는 받침대 위에 놓인 화병이 하나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아무 꽃도 꽂혀 있지 않습니다.

『금잔화는 자애(慈愛)의 꽃. 꽃말은 【고요한 마음】』

루미르: 왔구나. (보고 싶었어. 그런 말을 하는 얼굴입니다. 항상 말보다는 표정으로 그렇게 말해 왔었습니다. 오로지 당신만이 알아볼 수 있는 언어로.)

KP: 이 곳에서는 **침대, 선반, 옷장**을 각각 조사 가능합니다.

제인오스카 : .....응. 나, 왔어. 그리고, 보고 싶었어. (늘 그랬듯 루가 말을 대신해 보여준 표정에 응하는 건 저였기에 이번에도 입을 열어 답해준다. 그가 바라보는 시선을 좇아 침대에 무엇이 있을지 천천히, 아주 느리게 걸음을 뗀다.)

루미르: (그것을 지켜봅니다.)

KP: 병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나칠 정도로 하얀 침대입니다.

명찰 하나 붙어 있지 않아 이 방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점이 오히려, 묘하게 쓸쓸합니다.

관찰력 판정?

제인오스카 :

관찰력	
기준치:	85 / 42 / 17
굴림:	60
판정결과:	Regular

KP: 이불을 들추면, 그 아래에서 하얀 표지의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이름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누가 쓴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일기장을 살펴볼까?

제인오스카 : (조심스레 일기장을 들어 펼쳐본다.)

KP: 천천히 그것을 읽어봅니다.

이 일기를 읽은 당신, 즉시 **아이디어 판정**?

제인오스카 :

지능	
기준치:	70 / 35 / 14
굴림:	90
판정결과:	실패

KP: 혼란한 감정이 몸을 지배합니다.

달리 떠오르는 건 없는데, 익숙합니다. 이 일기의 주인이,

이것을 실제로 실행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므로,

당신은 당신의 정신을 보호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성 판정** 0/1

제인오스카 :

SAN Roll	
기준치:	55 / 27 / 11
굴림:	21
판정결과:	어려운 성공

KP: 이성 감소 없음.

제인오스카 : (루미르에게 무언가를 물으려다 머뭇거리다 결국 입을 다물곤 선반을 보러간다. 왜인지 루가 앉아있는 곳을 바라보기 힘들었다.)

KP: 선반 위에는, 금잔화 꽃이 한 송이 놓여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음에도 무척 생생합니다.

제인오스카 : ...꽃. (이전에도 조심스레 다루었으나 유독 더 손이 떨린다. 금잔화를 손에 소중히 거머쥔 채 옷장을 열어본다.)

KP: 그렇게 합니다.

작은 옷장 안에는 몇 벌의 상복이 걸려 있습니다.

사이즈는 제각각이지만, 당신에게 맞는 것은 단 한 벌뿐입니다.

원한다면 옷을 갈아입어도 좋고, 옷을 단순히 살펴봐도 좋습니다.

제인오스카 : (그냥 살펴보기만 하고 옷장을 닫는다.)

KP: 옷을 살펴보던 도중, 주머니 안에서 **칼집에 들어있는 과일 나이프**를 발견합니다.

그 나이프에 손을 뻗는 순간,

강렬한 환각이 밀려옵니다.

...

팔을 들어 올리고, 내려치고, 또 내려칩니다.

수차례 반복되는 동작이 누군가의 몸을 새빨갛게 물들입니다.

기분이 고조됩니다. 이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시끄럽고, 즐겁고, 끔찍합니다.

이 팔은 누구의 것일까요. 이 웃음은 누구의 것일까요.

그리고— 마침내 깨닫습니다.

피로 물든 것은 나이프를 쥔 당신의 두 손입니다.

저주처럼 남아 있는 누군가를 찌른 감촉.

피의 웅덩이 속에 쓰러진.... 소중한 사람.

미동도 하지 않는, 붉게 물든 시체.

그것을 만들어 낸 것도, 그 광경을 보고 웃고 있는 것도

모두 당신입니다.

당신이, 『소중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KP: 이 끔찍한 환각은 당신의 정신을 무참히 찢어 놓습니다.

이성 판정 1d 6+1/1d10+2

제인오스카 :

SAN Roll	
기준치:	55 / 27 / 11
굴림:	78
판정결과:	실패

rolling 1d10

(8)

= **8**

KP: 당신은, 일반적인 인간이라면 더이상 정신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까지 버거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이해했을까? **지능** 판정?

제인오스카 :

지능	
기준치:	**70** / **35** / **14**
굴림:	**43**
판정결과:	Regular

KP: 때로는 이해한다, 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해합니다.

격한 두통에 시달리고, 눈앞에 있는 사람의 몸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환각을 봅니다.

제인오스카 : *This message has been hidden.*

KP: *This message has been hidden.*

그 흘러내리는 피가 자기 자신의 옷도 적시고, 모든 게 전부 피투성이가 됩니다.

끔찍한 광경입니다. 그런 환각을 겪습니다.

제인오스카 : .....그러니까, 있잖아. ..... 있잖아. (차마 뒷말을 잇지 못하겠다. 눈앞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없었다. 나는 그를 부를 수 없었다. 보고 싶었다고 말한 주제에 그의 몸에서 피가 흐르게 한 이가 나다. 지금 내 손에 흐르는 피도,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오는 것도 전부 내 행동에서 이어진 결괏값이다. 이 모든 걸 입으로 뱉어내기 어려웠다. 당신은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 만든 날 소중하게 대할 수 있는 거야.)

..... 내가, 원망스럽지 않아? (이런 와중에도 당신을 찌른 게 잘한 것이라 느끼는 감정을 깨달으니 도저히 견딜 자신이 없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만다. 내가 널 보고 싶어해도 왜 싫어하지 않아? 내가 널 그렇게 무참히 찔렀는데. 지금도 널 죽이고 싶은 이따위 감정을 느끼고 또 지금 네가 준 꽃 대신 칼을 쥐고 싶어하는 날 그냥 두는 거야? 울고 싶었다. 아니, 웃는 건가? 입꼬리는 명확하게 올라감이 느껴졌지만, 눈에선 눈물이 흘러 나온다.)

KP: **살인벽**, 그 광기가 발현한 당신은 소중한 사람을 살해하는 감각을 이해해 버립니다.

그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슬퍼집니다. 아니, 웃고 있는 건가요?

얼마나 지났을까,

정신을 차리면.... 루미르는 이미 사라져 있습니다.

분명 주변은 피투성이였는데, 상복을 입고 있는 자신만 2호차에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가 앉아 있던 자리에 편지 한 장만이 남아 있습니다.

제인오스카 :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 끔찍한 감정이 싫었고 이런 와중에도 네가 보고 싶다. 이것은 소중한 널 죽이고 싶어 하는 마음일까. 많은 걸 깨달아버린 이젠 잘 모르겠어. 어떡해. 제인은 겨우 일어나 여전히 꽃을 소중히 쥔 채로 편지를 읽어본다.)

KP: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억해 버렸구나. 전부 다.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넌 거짓말이라고 여길까.

하지만 이제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어쩔 도리 없이, 조금 지쳐서....

곧 장례 행렬이 시작돼. 너와 함께 둘이서 하는 장례야.

아름답다고 생각해. 너와 단둘이라는 건.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을게.

KP: 그리고, 뒷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이면서, 내가 아니야. 지금의 나는 너에게 있어서 가장 편한 나야.

제인오스카 : 거짓말, 거짓말... (하지만 거짓이 아님을 안다. 너무나도 잘 알아서 괴롭다. 루는 내게 거짓을 고한 적이 없다. 거짓을 고하려고 해도 가까이 다가가서 널 들여다보면 내가 알아버렸다. 그만큼 널 잘 알았다. 그렇기에 이 진실이 거짓이길 바란다. 차라리 날 원망해. 날 미워해. 소중하다 못해 사랑하는 너를 죽이고도 또 죽이고 싶어 하는 날 증오해. 그게... 그게 낫지 않아?)

(편지가 눈물로 젖어든다. 널 지치게 만든 나를 용서할 수 없었고, 동시에 그 순간의 감각이 하염없이 날 찾아든다. 괴로워, 괴로워. 기다리고 있는 너는 여전히 날 좋아할까? 그럴까?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걸 바라? 너와 단둘인 순간을 언제나 좋아했지만, 이런 식으로 단둘이 남게 되길 바라진 않았다. 제인은 편지도 놓지 못하고 손에 쥔 채 안내판 앞으로 천천히 걸어간다. 네가 보고 싶어. 내가 싫어. 네가 좋아. 하지만 무서워. 언제부터인가 떨리고 있는 이 손에 쥔 꽃을 안내판 아래 꽃병에 꽂아 넣는다.) ...루미르.

KP: 꽃병에 금잔화를 꽂아 넣으면 잔인하게도, 예상대로, 언제나처럼 문이 스르르 열립니다.

마지막 호차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제인오스카 : (아마 이리 울어본 적도 없었던 것 같다. 내가 널 죽였는데 내가 울면 안되는 거 아니야? 옮기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너무 무거워서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눈물도, 걸음도 멈추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네가...) ...보고 싶어.

KP: 걸음을 옮깁니다.

-

1호차

KP: 1호차에 들어서는 순간, 들어왔던 문이 저절로 닫힙니다.

이 문을 다시 여는 것은 어떤 수단을 사용해도 불가능할 것이라는걸 당신은 깨닫습니다.

창밖에는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고 있고, 언제 밤이 되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주변은 캄캄하네요.

열차 안에는 발 디딜 틈 없이 꽃이 가득 깔려 있으며, 그 한가운데에는 관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관 속에는 창백한 얼굴을 한 '소중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마찬가지로 창백한 얼굴을 한 또 다른 '소중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루미르: ...기다리고 있었어. 오랫동안.

이제 끝이야. 네가 도달해야 할 곳. 말하자면 결승점 같은 곳. 잘 해줬어. (그렇게 말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당신을 살피고 위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너도 버텨서 이 곳까지 온 거잖아. 제인. 아니야?

(이쪽으로 와서 관을 보고 같이 서자는 듯, 손을 내밉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한 번 목숨이 끊어졌음에도 여전히, 당연스레 내밀 수 있다는 듯.)

제인오스카 : (네 목소리를 들으니 도저히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내 얼굴은 아마 엉망일 테지. 나를 어떻게 기다려? 내가 널 죽였잖아. 그렇잖아. 그런데 왜 나를 위로하려 해? 그럼에도 당신의 목소리는 여전히 좋아서, 아껴서, 소중해서 꾸역꾸역 입을 연다. 고집스럽게 손은 내밀지 못했다. 어쩌면 잡고 싶어서 움찔거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있잖아, 이런 것도 버텼다고 할 수 있는 걸까? 이런 사람이어도... 내가... 널 이렇게 만들었으면서 안아달라고 말하고 싶은 이 끔찍한 사람이 되었는데도 말이야.

루미르: ...끔찍해? (너 또한 내게 거짓을 고한 적이 드물지. 나도 어쩌면 당신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알려고 노력했으니까. 타인에 의해 깎여나가도 여전히 존재했던 다정을 비롯해서.)

아니야, 넌 아름다워. 아침의 신부처럼. 단지, 저항할 수 없었던 게 있었던 거야. 누구에게나 존재하듯이. (자신을 살해한 사람을 향해 팔을 뻗어 안아줍니다. 남김없이 몸을 붙여 꼭 끌어안고,)

제인,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이 장례 행렬을 완성하는거야. 이제 마지막이야.

제인오스카 :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은 잔뜩 있었다. 그런데 네 말을 들으니 모든 게 기억나질 않는다. 끔찍하지 않다고 말해주고, 안아달라 말하니 늘 내가 너에게 해주던 것처럼 네가 나를 꼭 끌어 안아준다. 네가 말하면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할래. 이 잠식하다 못해 삼켜질 것만 같은 끔찍한 감정 같은 건 조금 미뤄둘래. 제인은 그리 생각하며 품에 얼굴을 묻으며 마지막이라는 루미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루미르: (평소보다는 서늘할 체온, 하지만 안는다는 그 감각이 따뜻할지도 모릅니다. 등을 쓸어주며,) 알다시피 나는 너에게 죽었어. 바꿀 수 없는 사실이야. 그런데, 이 안에서의 나는 살아있어. 죽어 있는 저쪽의 나, 그리고 살아있는 이 안의 나.

그래서 선택해야 해. 자신의 죄와 마주하고, 내 죽음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나와 이 열차에서 영원히 지낼 건지. (한 뼘 정도를 멀어져 당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당연히. 당신이 고를 대답을 알고 있다는 듯.)

제인오스카 : (시선이 당신에게로 향하다가 결국 이리저리 흔들린다. 그래도 어떻게든 묻고 싶었던 말을 꺼낸다.) ... 있잖아, 2호차를 나오기 전에 루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

...정말로 내가 원망스럽지 않아? 날... 아직도 좋아해? (뱉어내는 단어마다 겨우 뱉어내는 것이 제인답지 않았다. 언제나 그 앞에선 망설이거나 힘들어하는 말 같은 건 하지 않았음에도 종종 자연스레 물어보던 좋아하냐는 물음이 왜 이리 힘든 건지 모르겠다.)

(루미르가 대답해주기 이전에 제 말을 마저 잇는다. 이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려서 그녀치고는 무척 울먹이고 있다고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네가 보고 싶으면 어떡하지? 사실 결정을 한 이 순간조차도 네가 보고 싶어. (겨우 그쳐가던 눈물이 흐른다. 평생을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데 이러는 것은 내가 널 너무나 많이 마음에 두었나 보다. 소중한 이는 그만 잃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건데. 스스로 다정함을 바친 이를 나는 결국 내 손으로 그리워하게 만드는구나.)

루미르: ...그런 질문은 평소에도 대답하기 힘들었을거야. (담담하고, 조금 머뭇거리는 기색입니다. 허리에 두른 팔을 놓지 않은 채로 고개를 아래로 기울입니다. 이 공간엔 둘밖에 없는데도, 마치 당신 이외에 목소리가 조금조차 멀리 퍼지기를 허용하지 않는 듯.)

널 좋아하지 않기는 힘든 일이야. 난 네가 항상 보고 싶었어. 그리고 네가 날 보러 와줬어. 그래서 네가 이렇게 된 이후엔 내가 널 보러 갔고.

...네가 좋았던 것 같아. 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고, 그런 너를 원망하지 않아. (울고 있는 당신의 몸을 끌어당겨 품에 가두고 쓸어내립니다. 소중한 것을 대하듯이. 이것이 제대로 된 위로가 될 것이라는 확신조차 없는 채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합니다.)

제인오스카 : 사실 맞아. 그래서 루 네가 평소처럼 대답해주지 않을 줄 알았어. (울먹이는 와중에도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둘 떠올랐는지 픽 웃어버린다.)

... 그런데, 이렇게 대답해주면 어떡해. (저항 하나 없이 안긴 채로 당신을 원망하는 듯한 내용이지만, 그 말투엔 루미르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밖에 묻어나지 않는다.)

좋아해, 정말로. 너와 함께 한 내 모든 순간은 아름다웠어. 내가 볼 수 있는 모든 색채를 담은, 그런 순간들이었어. 그게 설령 흑백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널 담아낸 색이라 좋아했어. 오색찬란한 색이었다면 그건 그것대로 좋았지. 그냥, 네가 좋다는 말밖에 하질 못하겠어. 웃기지, 미안해.

있잖아, 난 너의 이 위로를 언제나 좋아했어. 이 모든 몸짓 하나하나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느껴져서, 그게 좋았거든.

내가 루라고 부르고 루미르라 불리는 이와 함께한 시간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비록 한 번 잊은 건 할 말이 없지만. (작게 사그라들 듯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지만, 그의 귓가엔 충분히 닿았을 것이다.)

루미르: ... ... (당신의 말을 하나하나 귀담아 듣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눈치채고 있으니까.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알고 있으니까.) 응. 그러면 이 열차는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야.

KP: 당신은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비록, 잔인한 현실이지만.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

눈부신 빛이 시야를 가득 채웁니다.

이 화장열차花葬列車의 마지막입니다.

당신은 의식을 잃고...

KP: ...

-

KP: 눈을 뜨면, 당신은 과일 나이프를 손에 든 채, 루미르의 눈앞에 서있습니다.

막 내려치려는 순간인 듯, 루미르는 당황해서 눈을 크게 뜨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려칠 수 없습니다.

그런 짓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이프는 손에서 떨어지고, 당신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 모습을 본 루미르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 당신을 끌어안고...

KP: ...

-

시나리오 클리어 | 엔드 1: 『악몽에서의 각성』

『소중한 사람』이 살아 있는 것은, 관측자(탐사자)가 끌어당긴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고양이 상자 속에서의 선택, 혹은 마술이 만들어 낸 우연.

해석은 여러 갈래로 나뉘겠지만,『적어도 지금은』 평온한 일상입니다.

비록 그것이, 영원한 꿈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SAN 수치 1d20+5 회복

-

KP: https://docs.google.com/document/d/10C0ZCb1En9RhvrI7GUtKCSfxnRwY-XBjzRRgL6LIp0A/edit?usp=sharing (https://docs.google.com/document/d/10C0ZCb1En9RhvrI7GUtKCSfxnRwY-XBjzRRgL6LIp0A/edit?usp=sharing)
키퍼가 만든 번역본
ㅋㅋ

제인오스카 : rolling 1d20
(14)
= **14**

KP: rolling 1d100
(47)
= **47**
제인은 루미르를 47번 찔렀습니다
아니야..
안찔렀어
이거다구라야

제인오스카 : 흐아아아앙

루미르: 47번찔릴려다가지금
지금안찔린거임

제인오스카 : ㅁㅊ...
다행이다안찔러서

루미르: 이건 안쓴 대기브금
쓸려다안쓴거 많음 특히 브금

제인오스카 : 브금 좋다

루미르: 작동이잘안되어서
헐ㅋㅋㅋ

제인오스카 : 운이 안 좋았네요?

루미르: 흑흑 ㅠ
잉잉잉앵앵ㅇ애

제인오스카 : 아니 근데 미친...티알 지문

솔직히 자신 없었는데

루미르: 그래~?

제인오스카 : 정신차리고 보면
ㅈㄴ 많이 씀

루미르: 티알지문 내가 상황
만들어주고
ㅈㄴ쥐어짬

제인오스카 : ㄹㅇ
감사해요 쥐어짜이며

루미르: 취향에좀맞앗고트리거는없엇나요?

제인오스카 : 나 11시부터
방금까지 씹덕적으로 정신 나가서 울면서 지문 쳤다고 하면
대충 설명이 될까?;;

루미르: 탈수오는거아니가

제인오스카 : 물 많이 마셧어
ㅇ.ㅇ

루미르: 쿠소에로시날가야겟네
많이웃게
siba

제인오스카 : 트리거? 흠..
이정돈 ㄱㅊ

루미르: 나는 그

제인오스카 : 응

루미르: 잔인함
부분이
신경쓰이긴햇고

제인오스카 : 아~

루미르: 두번째로
캐조종은아니엇을까
싶은부분

제인오스카 : 나 텍고는 장기자랑(real) 아니면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기도
일단 여기 잔인함 정도는 괜춘햇어

루미르: 그리고 크툴루는 광기에 잠식된 무력한 인간과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신화생물을
주로다루고잇어서

제인오스카 : 캐조종이란 생각같은 거 ㅈㄴ 못하고 걍

루미르: 캐가무력한건

어떻게보면

ㅇㅇ

제인오스카 : 울어:네!!!!!!!

루미르: ㅋ

ㄸㅂ

제인오스카 : 이러고쳐울기바빴는데

루미르: 그래그래

제인오스카 : 그런 건 전혀 없엇고

키퍼가 잘 몰아줘서? 전 걍 울어 네 화내 네

루미르: 그리고 조사도

제인오스카 : 이난리치면서 함

루미르: 조사랄것도없엇잖아 사실

제인오스카 : ㅇㅇ 마자

루미르: 그냥캐입을

하는거지~

최하. 난이도최하.

ㅋㅋ

제인오스카 : 난 좋앗어 어 쉬운 게 좋아

ㅇㅇ

루미르: ㄱㄹ?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떠멕일게

제인오스카 : 떠먹여줘

루미르: 원래도쉬운거 내가 다떠멕엿어

제인오스카 : ㅎㅎ

나 약간 캐입이랑 수수께끼 풀기랑

동시에 못해

..

루미르: 나도 ㅎ

제인오스카 : 떠맥여줘야만

할수잇음 ㅁㅊ..

루미르: 알앗다 ㅎ

제인오스카 : 루니는 어땟서

루미르: 그냥재밋엇지 나 근데 진짜 번역이랑

이게생각보다도

원문이랑 분위기가 다른부분도있었고

난 이거를 준비하는과정이 훨씬길엇어서
ㅁ낳이생각하고오타쿠생각을
많이햇어

루미르: 원래 그 목걸이
선물주는 일기장부분

제인오스카 : 응

루미르: 그거 원래 미니카엿고
장난감차
근데 제인은 목걸이가더어울려서 개변하고
전반적인
이 pc의 뉘앙스가
소년

루미르: 같앗어서
제인한테맞게 개변하고
1~6호차 꽃도

제인오스카 : ㅁㅊ,,,,,

루미르: 원래 이름이 많이 달랏는데
뚜닥뚜닥고쳐서
썻음

제인오스카 : 너무 쥐어짜인 게 아닐가 싶어지는데
물론 나: 개좋앗음 ㅁㅊ

루미르: 아냐 난 근데 그런걸 정말 좋아해 그리고 나 사실 이거

제인오스카 : 아니걍진짜그포인트하나하나에소리지르면서함

루미르: 루미르
캐입
많이안할거라생각햇거든 왜냐면 화장열차가
케피시가막많이뭘지문을치는
그런시날은아니엇어서
근데 루미르가 자꾸 껴 들고 싶어햇어

루미르: 도서관칸에서도
이리와 하고

제인오스카 : ㅁㅈ
...ㅁㅊ개좋앗는데그거

루미르: 나는 그냥 없는 비중에 더 말없어서
진짜그냥공기면
어떡하지
걱정햇는데
아니엇고요 ㅇㅇ

제인오스카 : 말 없긴 무슨
루미르 평생 말 제일 많이 한 듯

루미르: 제인평생 ㅈㄴ울엇고요

제인오스카 : ㄹㅇ
어디 가서 못 본다 ㅋㅋ

루미르: 아 ... 나 사실
지문쳐준거
너무좋아서
지문을
보고서 빨리 답을해야되는데
난 사실

루미르: 제인이 지문 하나 주면 그것만 30분읽고싶엇음 근데 빨리 답을 해야 시날이 끝나든말든해서
나 지문치ㅡㄴ거
느리단말이야
나 근데 진짜 이거
엄청허겁지겁한거다?
ㅠ

루미르: ㅠ

제인오스카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미르: 줘.. 줘야돼..

제인오스카 : 내 지문 마음에 들엇어?

루미르: 줘야도 ㅣ
ㅠㅠ
어 난 너무 좋지 뭔들 안 좋음
이거볼라고
준비햇는데?ㅠㅠ

제인오스카 :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잇엇는데
근데 진짜 시날 내용도 ㅈㄴ 슬퍼서 운 거랑 별개로
난 정말 좋아하는 분위기고 주력인 분위기라

루미르: 그래? 오오

제인오스카 : 왜냐면 난 건조하고 너 울어!!!하는 지문에 강해서
누구 울리는 지문 잘 써
ㅇㅇ

루미르: ㅋㅋ

제인오스카 : 원래 그런 쪽 전문이엇어

루미르: 원래 원문에서는
다음 차 가서 기다릴게 약속하자 이런거
거의없고
그냥
5호차다.

제인오스카 : ㅁㅊ

루미르: 엔피시가나타낫다,
ㅇㅂㅇ

제인오스카 : 근데난그거에정신나가서
지문침

루미르: ㅋ
;
ㅋ
이거
루미르가
지문친거

루미르: 그냥 거의 다 시나리오에
없어

제인오스카 : ㅁㅊ..

루미르: 그냥 내 재량이야

제인오스카 : 근데 이런 거 좋아
..
캐에 따라 유동적인 게 좋아

루미르: 나두 ㅇㅂㅇ
널 닮은 꽃이야 스카비아는
이런지문
있지도않아 ㅅㅂ

제인오스카 : ㅋ
아 진짜 그 지문보고
고함지름진짜
미친.....

루미르: 뉘앙스도
생각보다엄청다름
앨저넌에게 꽃을 이것도
원래
엄청건조하게쓰여잇는거
앨저넌이 지능이없엇다. 상승햇다. 도로하락해서 정신병원다시들어감. 앨저넌에게 꽃을 주라 햇다더라

루미르: 이거를
지금저렇게풀어썻어

제인오스카 : ㅋ
상승했다
도로하락했다
뭔 주가야?

루미르: ㅇ ㅠ
ㅠ
엔피시도 그거 말이

아아~ 선의만으로도 충분히 사람을 망가뜨릴수 있는거아니겠음 뭐 그런 속담도 있잖음. 아 나도 꽃다발이 받고싶네~

공식은

뉘앙스가이럼

루미르: 아마 나도 그런 적이 있었을거야. 누군가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지조차 묻지 않고... (그렇게 말하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건 결국 못된 행동이었겠지.

(시선이 기울어져 바닥을 향합니다. 이후의 목소리는 바로 옆에 앉아있는 당신이 간신히 들을 정도로 작습니다.) 나는 그냥, 꽃다발을 받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

그건결국못된행동이엇겟지 < 이런말있지도않음

제인오스카 : 진짜

개좋앗는데저거

루미르: 나두

제인오스카 : 역시키퍼의능력이이래서

아니 저거 하나하나가 너무 좋아서

저거 하나하나에 다 대답해줌

ㅁㅊ..

루미르: 아니 이거 대사 그대로하느냐고 캐입 어긋나기보다

짜맞추는게

룽한거자나

제인오스카 : ㅇㅇㅇㅇ

그게 너무 좋아

루미르: 우리근데되게

생각보다

오래함

지금1ㅣㅅ ㅋㅋ

제인오스카 : 미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시 반에 시잘ㄱ했는데

루미르: 6시 반부터

1시 50분

7시간

제인오스카 : 7시간

루미르: 반

제인오스카 : ㅁㅊ..

루미르: ㅇ

제인오스카 : 근데 난 진짜

시간가는줄몰랏음

루미르: 이럴거면 근데

3호차에서

좀더쉬다갈걸그랫다야

우리쉬는시ㅏㄱㄴ도

솔직히제대로없엉ㅅ어
ㄱㅊ앗음? 쉬는시간도없이

제인오스카 : 사실 난 할만 햇어(ㅈㅅ)

루미르: 아'
이
ㅋ
이아이가
20대라체력이참좋아 ..^^

제인오스카 : ㅋ
아저씨왜이러세요진짜

루미르: 처자..
젊어서
좋겟어 어?
ㅈㅅ사실나도근데
별생각ㅇ벗이

제인오스카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미르: 잼게해서
힘들진왛ㄴ
지문이
너무좋아서..

제인오스카 : 약간 내가
글을 흐름을 타면 정말 빨리 많이 쓰거든?

루미르: 제발

제인오스카 : 이번에 진짜 흐름 타서 답이 쭉쭉 나옴

루미르: 난 ㅈ ㄴ 느려

제인오스카 : ㅋ

루미르: 나
식은땀
흘렷어

제인오스카 : 아니 말이 그렇다고 그래서 양이 좀 달라도
ㄱㅊ아..

루미르: 아니
양똑같이
맞추려는생각
하지도않앗어

제인오스카 : 그래 다행이야

루미르: 근데묻는거에대답은
해야될거아니야십
ㅋ

ㅋ

제인오스카 : ㅋ

ㅋ

루미르: ㅋㅋㅋ

이런거하고싶음

제인오스카 : ㅋㅋㅋ

안 하는 애야

루미르: 마지막지문도

제인오스카 : 눈물이 한참 흘러도 꾸역꾸역

루미르: ㅇㅇ 선택해 죄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영원의 화장열차에서 살아갈지
그냥이정돈데

제인오스카 : 네가 없는 세상에서 네가 보고 싶으면 어떡해

루미르: 아니야 넌 아름다워 아침의 신부처럼 ㅇㅈㄹ 난리 나

제인오스카 : <이미 받아들임
이런 느낌
아니진짜그거보고고함질럿ㄷ고

루미르: 이부분에서
나한테
한 30분 줬으면
훨씬 뭔가 다듬어서 줬을텐데 난 정말 너무 너무 느려서
그냥막울면서 아 이.ㅎ.잏.. 이거 덜어서
일단대답 쫌

루미르: 이러고

제인오스카 : ㅋ

루미르: 뚜닥뚜갇

제인오스카 : 아니 30분도안

루미르: ㅠㅠ

제인오스카 : 쳐도되는데
왜

루미르: 앙앙ㅇ아

제인오스카 : 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미르: 정확히는
행동묘사를
좀더깎고싶엇어
그냥 안는다 이게 아니라
약간 대충표현하면
이렇게해서이렇게안아서 일케 뭐 쓰다듬는다거나 머리를 넘긴다거나

루미르: 그런걸좀더많이하고싶엇어 대사에 가미되게
근데 ㅈ ㄴ 시 간이 하나도없엇

제인오스카 : 아니왜없냐고
ㅁㅊ
딴 거 하고 잇엇더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근데 처음엔 살아잇냐고 물어본 이유가

루미르: 왜냐면 아 아까

제인오스카 : 오로지 타자치는 게 안 보여서(여따 치는 줄 알고

루미르: 막 7분지낫는데ㅔ

제인오스카 : 그런 거라

루미르: 뭔가답을

기다리는거같길래

제인오스카 : 먼 일 잇나?해서

루미르: 아 내 ...

마지노선은 7분

제인오스카 : 아...아니 ㅁㅊ

그게 아니라

루미르: ㅠㅠ

제인오스카 : 그 전까진

타이핑이 보였는데

그때만 안 보여서

먼 일 잇나? 긁적 하고 딴 거

하고잇엇어 띠발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제인오스카 : 겟냐고진짜

루미르: ㅎ

제인오스카 : 담부턴 그냥 다 깎도록 해 . .

루미르: 나개오래걸려..

제인 나는

제인오스카 : 응 기다릴게

루미르: 글 하나 쓰는데 꼬박

2주 길면 1달도걸려

제인오스카 : 나도

묵히는데3주

루미르: 그래서절망하고

제인오스카 : 쓰는데2시간

루미르: 때려침

제인오스카 : 이지만비록

아 웃기다 진짜ㅣ 절대 아니니까

만약 다음에 또 가면; 그러지 말어라

루미르: 으응 ㅎ

아 이 뭔가 준비해온걸
주섬주섬다꺼내고
잼게논느낌이라
약간 바로
겜안하고 좀 여운을ㄹ

제인오스카 : ㄹㅇ

루미르: 곱씹어야겟어
ㅎ;

제인오스카 : 아니 근데 진짜

루미르: ㄱㅊ앗다면
다행~

제인오스카 : 처음부터 하나하나 이거 좋앗고저거좋앗고
말할라면

루미르: ㅋ

제인오스카 : ㅈㄴ 오래걸림

루미르: ㅋㅋㅋㅋ
ㅋ
그리고 이게 그냥 상상속에나살아움직엿지
대사를직접
칠려니까
얼타기도햇어첨에

루미르: 나 원래 썰풀때도
제인만큼 대사를 직접적으로 묘사안하잖아?
ㅈ ㄴ 갑자기

제인오스카 : 그치

루미르: 대사를 쳐야된대

제인오스카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난 원래도 글을 쓰니까 대사를 더 자주 치지

루미르: 이게 대사가 잇음
좋겠다
딱 인지되는순간만
대사묘사함
아님 좀 뭉뚱그려서
눌러서썰글씀

루미르: 알지 ㅇㅇ

제인오스카 : ㅇㅇ알지
아 디코쪽에 보내둔 거
지금 봣는데
나 기억해버렸구나 거기 부분

나도 지문 ㅈㄴ 맘에 듬
진짜 신들린 듯이 씀 거기

루미르: 퓨
ㅠ
나
저거
저것만한
30분읽고싶엇어

루미르: 저때부터이미

제인오스카 : ㅋㅋㅋ

제인오스카 : 괴로웟어

루미르: 그런거를좀
쓰고싶엇어

제인오스카 : 이ㅏ니진짜
아름답다고생각해너와단둘이라는건
이거진짜
에바라고
한줄로날정신나가게만듬

루미르: ㅋ
ㅋ
ㅠ

제인오스카 : 저때 일부러
대사를 확 줄였어
말을 못 뱉을 것 같아서

루미르: 곧 장례 행렬이 시작돼. 너와 함께 둘이서 하는 장례야.
이것도
곧 장례 행렬이 시작돼 다른 사람 없이 너하고만. 너랑나랑만. 약간
독점적인
대사가잇길래깎앗어

제인오스카 : 말 잘하는 애가 감정 꾸역꾸역 삼키느라
아진짜개좋음

루미르: 엉엉앙러엉ㅇㅇ엉ㅎㅇㅇ앙앙아ㅏㅠㅠ
ㅠ
ㅠ

제인오스카 : 문장도 일부러
싫어할까? 아니 좋아할까?
하면서 반복하고 대조시키고
감정교차를..
많이씀

루미르: 아너무
좋아제ㅏㅂㄹ
우린
3-4시간 짜리 시날을
6시간 반도안

제인오스카 : ㅋ

루미르: 즐긴거ㅣㅇ

제인오스카 : 7시간 반
..
이야

루미르: ㅅㅂ

제인오스카 : 2배로 늘렸음 ㅁㅊ

루미르: 「앨리스 교수에게 악의는 없었어. 그녀는 완전한 선의로 사람을 망가뜨렸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원래 뜻은 아니지만」
「아마 나도, 선의로 누군가를 망쳐버린 거겠지」
「아아, 앨저넌이 부러워」
「나는 그저, 꽃다발을 받고 싶었을 뿐인데」
이게 시나리오 원문 좀 부드럽게 다듬은거

루미르: 루가한말: 나는 그냥... 누군가 꽃다발을 내게 건네줬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지도 몰라.
앨리스교수에게 악의는 없었어 / 앨저넌이 부러워 < 뺌
(다 설명한 뒤, 한 템포 늦게 제 감상도 뱉습니다.) 선의만으로도 충분히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 거겠지.
난요기개변도 스스로
맘에들어

제인오스카 : ㅇㅇㅇㅇㅇㅇ
개좋아
(다 설명한 뒤, 한 템포 늦게 제 감상도 뱉습니다.) 이게 진짜
너무너무너무 루임

루미르: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맞아
ㅠ
ㅠㅇㄱ맞아
아ㅏ아

제인오스카 : 그리고 꽃다발을 받고 싶었다가

루미르: (그러면, 발소리를 듣고 자연스레 책에서 시선이 당신 쪽으로 옮겨 머무릅니다.) 왔구나.
널 닮은 꽃이야. 스카비아는.
ㅜ

제인오스카 : 애도해달라는거였다는게

루미르: ㅁㅈ..

제인오스카 : 십 난 그것도 모르고 꽃다발이던 다른 것이 되었던 해줄게
이런 지문 쳤네

루미르: 속으로웃엇어그래서

제인오스카 : 그 마음이 뭐가 나쁘냐고 . .

루미르: 그게

제인오스카 : ㅁㅊ...

루미르: 눈덩이
처럼불어나
ㅋ
ㅋ

제인오스카 : 진짜
미치겟음

아니그리고널닮은꽃이야스카비아는에서
정말 고함지르느라
지문 어떻게칠지
고민함;

제인오스카 : 어때 대답 제법 제인오스카 같앗어?ㅋ;ㅋ

루미르: 너무
너무좋아
나사실
저기서
옆자리로
오라할까

루미르: 옆자리 가볍게 두드리면서
앉을래?
하려고햇는데
제인이먼저와줘서
너무너먼ㅁ너뭊귀엽
다고생각햇음

제인오스카 : ㅋ

루미르: 글고
낮우에

제인오스카 : 아 진짜? 응

루미르: 떡밥회수로
연보라색이엇네..
하는거 십

제인오스카 : ㅋㅋ
응
어때 ㅋ
회수잘했지

루미르: 죽을라고
나
ㅠ

제인오스카 : 처음엔 적당히
보라색 꽃이라 날 닮았다고 하는 거겠거니~
했는데
ㅋㅋ

루미르: 아그리고 식당차에서
루가 응
하자마자
저항없이
한입하는거
너무좋앗어

루미르: ㅅㅂ

제인오스카 : ㅋㅋ

약간...

평소에 원한다고 잘 하지 않는

루미르가 자신한테

그리 말하는 걸 보니까

해주고 싶었던 거임

제인오스카 : 그래서 어지간한 루의 요구는

다 따랐어 얘

루미르: (당신이 그렇게 하면,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저항 없이. 하지만 그 보는 눈동자 속에선 이전에 보았다시피,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은 짧고 명확합니다.) 응.

이거

그냥

이 응

을 하기 위해

한 앞에묘사도

루미르: 난나쁘지않앗어

스스로 ,

,

결국 이게

루는 내가 조금이라도 챙겨먹었음 좋겠어 ? / 응 / 알았어

이거인데

루미르: 아 ㅅㅂ!!

아개좋아

제인오스카 : ㅁㅈ

아니 저 묘사들이

좋은거라고요

당연한거아니야1?!?!!

난 대사 한줄씩밖에없는애들의감정묘사가

너무좋아

루미르: 막

그냥

꽃을 냅다

가져다꽂는다 이게아니라

꽃 하나하나에

걷는묘사까지 다해줘서

루미르: 좋앗음

꽃을들고

말한다던지

제인오스카 : 아 맞아

그거 호차마다 그래서

묘사가 다름

감정이 실리는 게 호차마다 달라져서

처음엔 루가 준 거니까 조심스레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꽂고

제인오스카 : 하나하나 지날 때마다

루미르: dslrmf아니그리고미치ㅣ니 스카비아개예뻐

제인오스카 : 그걸 담아내는 마음이 무거워지고

루미르: 진짜제인보라랑닮음

제인오스카 : ㅋㅋㅋㅋㅋ

루미르: 아침의신부

제인오스카 : 근데 내가 거따 대고

부케 이난리

ㅋㅋ

루미르: ㅠㅠㅠ

제인오스카 : 근데 정말 ㄱㅊ지 않아?

ㅎ

루미르: ㅇ유ㅠ

ㅠ

제인오스카 : 번역본도 보고 있는데

3호차에서 붙잡지 않길 잘햇네

ㅁㅊ

루미르: ㅋㅋㅋㅋㅋㅋㅋㅋ

저거 근데 저 번역본이

이미내가많이바꿔놓은

거야

제인오스카 : 아니 걍 저 상황이

너무슬퍼서

안붙잡아서다행이라

생각중인거야

루미르: 아

맞지

나

그래서

있잖아 다음에서도 기다릴거야? < 이 지문에서

ㅈㄴ

루미르: 심장존나뛰뮘

이..이

나.

제인오스카 : ㅋ

루미르: 붙잡을거

거니?

ㅋ

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

제인오스카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미르: (뒤돌은 채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대답하는 목소리만 들려올 뿐..) 그러길 원해?

라고하느네

오너

진짜?

진짜?

제인오스카 : ㅋ

루미르: ㅋ

제인오스카 : ㅋ

루미르: ㅋ

제인오스카 : 근데 그거 보고

순수하게 든 생각이

아마 얘는 루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렇게 말하면

손만 조금 들었다가 놨다가 하더니

다시 내려두면서

그냥 순순히

제인오스카 : 보고 싶어서.

라는 말을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지문을 침

적어도 그 상황에선 억지로 붙잡진 않았을 거야

루미르: 나는상상하건대

살인ㄱ벽

광기제대로 도져서

제인이 루를어떻게하는

것도

좀가능성에

루미르: 둬봤는데

애가이성판정을

참잘해어

제인오스카 : ㅋ

아니 ㄹㅇ

루미르: ㅋㅋ

제인오스카 : 이성판정이

아니

70인데

죄다 실패를 해서

거의 끝까지

루미르: 루는그래도지금 여기화장열차에서 어?

대우잘받은거야

어?

대우잘받은거라고

제인오스카 : ㅋㅋ

아니 진심 다이스가

ㅈㄴ 잘 뜨더니

그것만 다 실패를 해서

아니 왱 ㅣ래!!!!!!!!!!!

햇는데

제인오스카 : 결과적으론 다행;;

이 됨

루미르: 제인오스카 :꽃다발... 그러니까 이게 스카비아, 네가 나를 닮았다고 했던... (분명 곁에 루미르가 듣고 있지 않음에도 제인은 꼭 그가 3호차에 남아있는 것처럼 작게 읊조린다. 생화의 감촉이 보드라워 조심스레 쓸어본다.)

...정말로 연보라색이네. 바보 같아. (괜히 그의 탓을 하며 꽃기 아깝다는 듯 안내판 아래로 걸어가 꽃다발을 꽂아 넣는다. 이상하게도 이 꽃들 전부가 꼭 루가 제게 건네준 것 같아 제인은 마음이 잔뜩 복잡해진 채로 가만히 서 있었다.)

KP:마치 그가 당신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꽃병에 건네주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시금 루미르를 만나기 위해 꽃병에 꽃을 꽂아 넣습니다.

2호차로 향할 수 있습니다.

ㅇ니 이거 ㅅㅂ

루미르: 지문개좋아서

나 망설이다

2호차로향합니다 < 말고

다 룽해서

홀린듯이침

제인오스카 : ㅋㅋㅋㅋㅋ

사실 중간에

정말로 연보라색이네 바보같아 이 직후 행동지문을

좀 칠까말까 고민했거든?

얘한테 안 어울리나 싶어서

근데 그냥 꼭 쓰고 싶어서

제인오스카 : 썼어

루미르: ㅠㅠ

ㅠ

ㅠ

제인오스카 : 정확히는 제게 건네준 것 같아 <

이게...

좀 고민됐는데

루미르: ㅠㅠㅠ

ㅠ

ㅠ

ㅇㅇㄴㄴㅇㅇㄴㅇㄴㅇㄴㅇㄴ

제인오스카 : 꽃말들이 암만 봐도

루가 제인한테 하고 싶어하는 말 같아서

루미르: ㅁㅈ

제인오스카 : 얘도 어렴풋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얜 눈치가 없는 건 아니니까

루미르: ㅁㅈ..

.....

.....

...

제인오스카 : 그래서 괜히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루미르: ,,

제인오스카 : 지문을 쳤는데

루미르: 커...컥

제인오스카 : 마음에 들어하셔서 다행이네요?

루미르: 컥

왔구나. (보고 싶었어. 그런 말을 하는 얼굴입니다. 항상 말보다는 표정으로 그렇게 말해 왔었습니다. 오로지 당신만이 알아볼 수 있는 언어로.)

나이거

쳐놓고

보내기전에

엔터치기전에

루미르: 너무꼬시는거같나

고민함

십. 그냥 몇개

덜어낼까

제인오스카 : ㅋ

근데 정작 내 답변

나 왔어 보고싶었어

ㅋㅋ

늘 그랬듯 루가 말을 대신해 보여준 표정에 응하는 건 저였기에 이번에도 입을 열어 답해준다.

이것도 맘에 듬

제인오스카 : 실제로 얘넨 그런 관계일 거라고 생각해서

루미르: ㅁㅈ

루미르:(천천히 일어납니다.) 시간이야. 난 먼저 가야 해. 넌 여기서 찾아야 할 걸 마저 찾아.

제인오스카 :...있잖아. 다음에서도, 기다릴 거야? (구태여 붙잡진 않았지만, 목소리가 루미르의 발걸음을 잡고 싶다는 듯 흘러나왔다.)

루미르:(뒤돌은 채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대답하는 목소리만 들려올 뿐..) 그러길 원해?

제인오스카 :(이번엔 돌아봐 주지 않은 것에 이유가 있을 거란 이성과 달리 손을 뻗어 돌아보게 잡고 싶단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에 가득 찬다.) ...그냥 난 너를 늘 보고 싶으니까.

나

루미르: 이거

이거보고

아 쉽 그냥 시나리오 때려치고 ㅈㄴ안아가지고 맛있는거맥이고

이불덮고싶네

제인오스카 : ㅋ

ㅋ

루미르: 속으로 ㅇㅈㄹ

제인오스카 : ㅋ

루미르: ㅋㅋㅋ

제인오스카 : 아니 그래ㅓㅅ 사실 나 저거 칠 때

너무...

얘 안 같나?;

하고 고민은 햇는데

루미르: 루한텐

가능

ㅎ

제인오스카 : ㅇㅇ

그런 마음으로

루미르: 근데

제인오스카 : 모든 지문을 쳤어

루미르: 아 쉽 그냥 시나리오 때려치고 ㅈㄴ안아가지고 맛있는거맥이고

이불덮고싶네

키스나갈기고싶다

이

생각한게

너무 그 당시

루미르: 또렷함

제인오스카 : 얘의 모든 행동과 말은 평소와 다르더라도

루미르: sibal

제인오스카 : ㅋ

ㅋ

십

루미르: ㅋㅋㅋ

제인오스카 : 루에게만큼은

이 행동들이 진실될 것이고

루미르: ㅇ웃겨서

제인오스카 : 그 말하는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가

루미르: 눈물남

아까는

ㅈㄴ사색대서

제인오스카 : 얘일 거라서

루미르: 미치니

제인오스카 : 십 개웃기네

근데 나도 중간에

와 십 걍 키스때리고 미쳤냔소리나들을까를

고민하긴햇던거같애

루미르: 2호차에도

1호차에도

아그냥키스갈기고

이거다구라야

ㅇㅈㄹ

제인오스카 : ㅋㅋㅋ

제인오스카 : 걍 키스시킬걸

루미르: 한판치고싶엇나

제인오스카 : 십

루미르: ㅇ..

제인오스카 : 근데 절절하기론

루미르: ㅋ\

ㅋ

제인오스카 : 끌어안는 게

딱 적정선같긴 해

이성을챙기며..

루미르: 나도사실

제인오스카 : 얘네관계에선..

루미르: 키스하고싶엇음

키스까진

제인오스카 : 물론키스시키고싶긴햇어

루미르: 나브지

근데

내가먼저키스갈겻다가 제인이 호응햇음

이제이다음부터

나지문치는거

30분걸려서

루미르: 아오케이

접자

내

그릇이

이게아니다 ..

제인오스카 : ㅋㅋㅋ

아 과도 챙길 수 잇엇던 거구나

당연히정신나가서 편지만 챙김 십

루미르: (네 목소리를 들으니 도저히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내 얼굴은 아마 엉망일 테지. 나를 어떻게 기다려? 내가 널 죽였잖아. 그렇잖아. 그런데 왜 나를 위로하려 해? 그럼에도 당신의 목소리는 여전히 좋아서, 아껴서, 소중해서 꾸역꾸역 입을 연다. 고집스럽게 손은 내밀지 못했다. 어쩌면 잡고 싶어서 움찔거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있잖아, 이런 것도 버텼다고 할 수 있는 걸까? 이런 사람이어도... 내가... 널 이렇게 만들었으면서 안아달라고 말하고 싶은 이 끔찍한 사람이 되었는데도 말이야.

여기

제인이

1호차에서이랫을때

아 진짜

지금와서든생각인데 아마 행동묘사

루미르: 더깎앗으면 아마

손을끌어당겨서 손등에 입맞추고 끌어당겼다 그리구안아줫당 이런식

이엇을거같아

대충그렇게

알아라

제인오스카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진짜

개좋다..

루미르: ...끔찍해? (너 또한 내게 거짓을 고한 적이 드물지. 나도 어쩌면 당신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알려고 노력했으니까. 타인에 의해 깎여나가도 여전히 존재했던 다정을 비롯해서.)

아니야, 넌 아름다워. 아침의 신부처럼. 단지, 저항할 수 없었던 게 있었던 거야. 누구에게나 존재하듯이. (자신을 살해한 사람을 향해 팔을 뻗어 안아줍니다. 남김없이 몸을 붙여 꼭 끌어안고,)

그래도 이것도

맘에들오

제인오스카 : 내밀지 못한 손을 부러 끌어당겨서

입맞춰주고 안아준다는 게

ㅁㅊ..

아!!!!!!!!!!!!!!!!!!!!!!!!!!루미르어케안좋아함?

루미르: 그리고 손등에

키스하는게

구애의

뜻도잇잖음

제인오스카 : ㄹㅇ

미친거임

루미르: 휴 ㅋㅋ

제인오스카 : 아니 나 진짜 저 지문 보고

저 지문 직전에 눈물 다 닦고

루미르: 그래서 나 좋아해 남캐가 여캐 손등키스하는거

제인오스카 : 세수 다하고 휴 ㅋㅋ

루미르: 그게 자기를 낮추고

제인오스카 : 하고 왓는데

루미르: 난니가좋아

이러는거같아서

제인오스카 : 저거보자마자

루미르: 그래서좋아해

제인오스카 : 개같이다시움

루미르: 내가 널 진짜

제인오스카 : ㄹㅇ 나도 남캐가 여캐한테 손등키스하는 거

루미르: 안좋아할도리가없어 정말 좋아한다니까

제인오스카 : 너무좋아함

루미르: 이리와봐

이런거

제인오스카 : 아마 얜 평소에

난 루가 좋다는 말을 했을 텐데 루도 나 좋아해?

는 잘 안 했을 거란 말임

루미르: 잘 안하는데

한번은

물어봣엇으면

좋겟다

제인오스카 : 만약 해도 루의 대답은 기대를 안 했을 거고

루미르: 왜냐 : 상상하면재밋음

제인오스카 : 만약 머뭇거리면

괜찮아 무리하지 마

하면서 그냥 입 맞춰주고 대답 안 듣고

끝냇을 거란 말임

루미르: 제인이 그 말 하면

글케끝내려고 하면 왜 내 대답은 안 들어? 기대되지 않아서야?

하고물어봄

제인오스카 : 그러면 약간 얘 치고 당황한 기색으로

그럴 리가 없잖아. 그냥 네가 이런 질문을 부담스러워할 텐데, 내가 괜히 물어봤나 싶었을 뿐이야.

이런 느낌..

... 난 널 좋아하는데 기대되지 않을 리가 없잖아.

이 말은 좀 들릴 듯 말 듯 작게 말함

루미르: 내가 고민할 시간을 줘 나한테 여지조차 주지 않았잖아 하고서 얘도 얘 딴엔 좀 당황해서 말하는데 이 말 하는거 자체가 잘하는건지를 모르겠어서 표정관리 잘 안됨

근데 단어선택 ㅈㄴ

무슨

고백에대응하는 자세

이딴거라

그냥

루미르: 너나좋아? 가벼운

이런건데

이아이가지금 ㅈㄴ 무겁게 몰아가고 말한마디에진지하게

고민하는거지

먼지알?

제인오스카 : 먼지알

근데그래서좋은거라고 ㅁㅊ

루미르: 왜냐면 나도 널 좋아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가능한 널 섭섭하지 않게 하고 싶어서

어쩌고 말하다가

제인이

아니 그럼 그냥 그게 결국 좋아한단소리아니냐고

뭐이런식으로

대화진짜

루미르: 바보같이

흘러가면좋겟다

제인오스카 : 정말 너무 귀엽고

마음이 좋음

근데 그런 식으로 흘러가도

결국 얘는 루의 대답을 온전히 기다려줄 거임

적어도 루가 말하고 싶다 < 하고 의사를 표한 이상

ㅇㅇ

루미르: 그걸만족스러워함

ㅎㅎㅎㅎㅎㅎㅎ아귀엽네 ㅁㅊ

제인오스카 : 아니 진심 너무너무 좋다

번역본 다 읽고 왓는데

엔딩2 영원히 상복 입은 상태 <

룽하다

근데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내 캐자들은 죄다 엔딩1임

루미르: 2가

핏따리인애들로가서

영원의호ㅏ장열차하는것도

나름재밋을거같은데

나도 내캐들이

다 1이야

제인오스카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치;; 재밋을 거 같은데

내 캐들이 다 1임

루미르: ㅋㅋㅋㅋㅋ

우리 세션 취향이 맞는다고 해도

되는걸까

제인오스카 : 하다못해 시호연월도

루미르: 나름재밋게

제인오스카 : 1번일걸..

루미르: 논거같음

제인오스카 : 난... 이정도면
나름 맞다고? 생각되긴 하는데
사실 아니? 잘 맞는다고 생각함 근데 난 따라가는 pc였어서
내 생각이 맞는 건진 잘
ㅋㅋ

루미르: 막 불쾌하거나 루즈하거나
근데 난 또 가끔 가는거면 또 가도 ㄱㅊ을 거 같음

제인오스카 : 와 진짜 전혀 그런 부분없엇고
정말 내내 집중함. . .

루미르: 와진짜
키퍼에게
최고의 극찬임그게

제인오스카 : 기다리는 동안 트위터 정도만 좀 보고
지문 다시 읽고
ㅅㅂ...
하고 잇고

루미르: 나두

제인오스카 : 머리쥐듣느라바빴는데

루미르: 마비경매장정도만보고
트위터보고

제인오스카 : ㅇㅇ
ㄹㅇ
아니 생산할
정신머리가 안 나던데
혼미해서

루미르: 나는 하라면 할순잇엇는데 이거는 내가
키퍼라서
모든준비다해둬서
그럴수잇어
ㅋ
ㅋㅋ

제인오스카 : 난 하려다가
못해..
하고 얌전히
지문이나또먹음

루미르: 근데
마지막에
지문
ㅈㄴ줄때
아 쉽
잣댓네

제인오스카 : ㅋ
ㅋ

루미르: 이러고아ㅓ무것도못함
ㅋ
ㅋ
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

루미르: 3호차?
부터 ㅅㅂ
못함
ㅋㅋ
ㅋ

제인오스카 : ㅋㅋㅋ
그치만3호차는
니가먼저

루미르: ㅠ

제인오스카 : 널닮은꽃이네부터시작햇어
니잘못

루미르: 결혼하자 ㅁㅊ!!

제인오스카 : 니가나씹덕만든거야
아니 샤갈 진시릉로 그거
와 이거 뭔 프로포즈인가?
정신나가서고민함
(아마 이리 울어본 적도 없었던 것 같다. 내가 널 죽였는데 내가 울면 안되는 거 아니야? 옮기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너무 무거워서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눈물도, 걸음도 멈추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네가…) …보고 싶어.
나 이 지문도 맘에 들어

제인오스카 : 저거 원랜 약간 달랐는데
눈물도 걸음도 멈추지 않았다 <
이거 쓰고 싶어서
앞 문장 다듬음

루미르: 나도 보고십어 이런 쉽 진짜 다 때려치고 키스 갈기고싶음

제인오스카 : ㅋㅋㅋ
저거 마지막에

...보고 싶어

루미르: dkwhd아종나

제인오스카 : 만 일부러 남김

루미르: 다때려치고키스갈긴다 < 개웃겨서

트위터에

엔딩났다고

같이ㅗㄹ려야지짤

제인오스카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저 보고싶다는 말을

정말 툭.

자신도 모르게

보고 싶어.

하고 읊조리듯..

루미르: 자꾸 근데 보고싶어 보고싶었어 보고싶을것 같아서 자꾸 얘들이 이러잖아 악!!!

제인오스카 : 뱉어냈을 거임

어 내가 작살꽂았어

루미르: 너이러고도

무사할거같아?

복수한다

제인오스카 : 근데 다음칸에서 기다릴게

이랬잖아

그럼

보고싶어

해줘야하는거아니야?

기다릴거야?

제인오스카 : 해줘야하잖아

루미르: 아앙앙ㅇ아앙ㅇ아ㅏㅇㅎㅇㅎㅇ

나그래서

다음칸에서

기다려줄거야? 지문보고

2호차로 넘어가서

아 2호차에 엔피시나오겟지?

루미르: 찾아봄

ㅆㅃ

ㅋ

ㅋ

ㅋ

제인오스카 :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미르: 잇는거

확인후

약속할게 ㅇㅂㅇ

ㅋ

ㅋ

ㅋ

제인오스카 : ㅈㄴ웃기네 아

나 그래서

설마 안 나오나?

하고잇엇는데

십

루미르: 아 나 그네 진짜 제인 글도 취향이엇는데 아 하긴 글이 취향인데 지문이 취향 아니기도 힘들겟지... ㅈㄴ 좋다

네저이거

뜯어먹을라고

키퍼링준비햇고

더러운 마음

품엇고

루미르: 이것 가지고

제인오스카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미르: 십덕질이나할라고요

제인오스카 : 아 지짜

다행이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

내 글이 취향이라

지문도 맘에 들어해서

루미르: ...

제인오스카 : 마음에 안 차면

루미르: 도망치고시펑

제인오스카 : 우카나~

고민했는데

첨에도 그래서 좀 걱정했거든

루미르: 화장열차는

좀 슬프잖아 이게 어쩔수없는현실 그러고싶지않앗는데. 보고싶지만못만나 < 같은 요소

내가 추천해준 다른거는 이것보다 슬픔. 같은요소는덜함

아니

아닌가?;

아

루미르: 아 뭐 덜

덜함

대충

제인오스카 : ㅋ
근데 덜하거나 비슷해도
다 좋아
대체 왜 나한테 해피엔딩이 아니라 취향 아니면 어카지

루미르: 일단

제인오스카 : 걱정한거지

루미르: 아
.....

제인오스카 : 이유낟

루미르: ..

제인오스카 : 들어보자

루미르: 아니 결국 엔딩전까진
이..
못만나고헤어졍댜ㅢ는
그런거상정하고잇고
그냥..

제인오스카 : 맞아

루미르: 느낌이 ..
ㅎㅎ

제인오스카 : 당옆리 못 만날 거 상정하고
ㅈㄴ 마음의준비다하고
엔딩보는데
갑자기루가당황한얼굴로
나: 예?

루미르: 47번
찔리기직전;

제인오스카 : ㅁㅊ...
안대!!!!!!!!!!!!!!!!
물론

루미르: 원래

제인오스카 : 그 지문도 치라하면

루미르: 사람은 잘안죽어

제인오스카 : 울면서 잘 쳤을걸

루미르: 이거엿는데일기도
루는 잘 안죽는대
밤의목소리가 들려줫다
루미르는,

잘안죽는대
그래서

루미르: 진짜죽을때까지죽여야된대
약간이런식 의
어떠한 ..
근데
엔딩부분부터는약간
열린

루미르: 어떠한그거라
걍
대충이랫다저랫다썰푸는게난
제일나아보여서
나눕고싶어 ㅁㅊㅋㅋ

제인오스카 : ㅋ

루미르: 누워서카톡해

제인오스카 : ㅋ

루미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인오스카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미르: ㅠㅠ
ㅠ

제인오스카 : 나도 오늘은

루미르: 앙앙ㅇㅇ앙ㅇㅇ아

제인오스카 : 정리해야겟다

루미르: ㅋ
ㅋ
브리레흐
안돕니까?

제인오스카 : 이 여운을 가지고
내가 씹새끼들을만나러

루미르: 일단난ㄴ못돌아

제인오스카 : 공팟에가라고?

루미르: 아십
제발

제인오스카 : 너랑 크바 도는 거면 몰라
근데 나중에돌자...
너언제시간돼.....

루미르: 나언제든/...///
사실구라야 ..

제인오스카 : 알어

루미르: 내일 2-4시제외 8시30분-10시30분제외
내일
ㅁㅊ시퇴?
몇
8?

제인오스카 : 그래 830-1030 나랑
가ㅣㅌ이가는거
ㅋ
ㅋ

루미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낼
출근해아낼

제인오스카 : ㅇㅇ 1출 8퇴

루미르: 허~

제인오스카 : 그래서 가게에서 밥 시켜두고
먹으면서 4관 해야댕

루미르: 그래
발로도
깬다이거지

제인오스카 : ㅋ
아아아앙

루미르: ㅋㅋ

제인오스카 : 아냐야앙
ㅜㅜㅜㅜㅜㅜ

루미르: 아아앙이난리
애앵ㅇ
앵앵앵
이난리

제인오스카 : 흥

루미르: 내일
그럼
ㅇㅂㅇ;
잠좀자두고올라니까

제인오스카 : ㅋ

루미르: 밤에해 ...

제인오스카 : 그랭
ㅇㅂㅇ
이랃 ㄴ눕지자

루미르: 확정된약속 x 왜냐면
그때가서졸리면

제인오스카 : 햄들다....

루미르: ㅋ
ㅋ
아 햄들대
아

제인오스카 : 응 너 졸리면

루미르: 내가울렷어

제인오스카 : 보내줄 거야

루미르: 아니?
난안햇어
화장열차
시나리오가울린거
난잘못없어 ㅇㅇ

제인오스카 : 니가
개변햇잔아
니가나울렷잖아
널닮은꽃이라며
ㅁㅊ!!!!!!!!!!!!!!!!!!

루미르: 도망쳐야겟다

제인오스카 : ㅋㅋ